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교화분과, 모싯잎떡 기증

광주교도소(소장 최규철)는 지난 22일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교화분과(위원장 박종관)로부터 모싯잎떡 4400개(22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 〈사진〉

교정협의회 교화분과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박종관 위원장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명절을 보내는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규철 소장은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교화분과 위원님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떡 기증을 통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상기업, 아동복지시설에 과자선물세트 기부

정상기업㈜(대표 이정오)이 25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에 과자선물세트를 기부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이정오 정상기업㈜ 대표, 최모세 광주영신원장 등이 참여했다. 기부물품은 정상기업㈜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17개의 아동거주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정오 대표는 "과자를 하나하나 포장했던 정성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커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기업㈜은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됐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400명에게 과자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을 이어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박진성 한양 N.T 회장 구례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

구례 출신 기업인 박진성(오른쪽) ㈜한양 N.T 회장이 구례군(군수 김순호)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박 회장은 구례 출신으로 1986년 한양화학산업을 설립한 후 현재 ㈜한양N.T., ㈜한양글로벌을 운영하며 국내 최대 방수기술 업체로 성장시켰다.

방수제품 및 공법개선에 나서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 2021년에는 건설신기술향상 공로로 대통령표창도 수상했다.

이밖에 농어촌 집 고쳐주기 후원과 수재의연금 기탁 등 매년 고향발전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복지시설 봉사활동·기부금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25일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영암지사는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활시설인 '사랑의 집'을 찾아 어르신 산책, 시설 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문희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은 "윤리적이고 청렴한 활동을 하는 공사의 모습이 사업추진 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소화자매원에 성금 전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허서혁)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 이렇게 모인 성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에 전달했다. 또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홍보물품과 직원들의 옷과 책 등 애장품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빛고을 청렴 리사이클 센터' 기부활동도 함께 펼쳤다.

허서혁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한가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 박사과정 김도희 씨 연구 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전남대학교는 25일 교육학과 김도희 박사과정생(사진·지도교수 정주리)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도희씨는 '국내 은둔형 외톨이 상담 모형 개발'을 주제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4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학문·연구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향후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항저우 〈수영/사격〉	30 930 MBC 뉴스 55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55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유도/사격/태권도〉
10	00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			0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유도/태권도〉	
12	0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격/태권도/사이클〉			3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유도/사격/태권도〉
1		00 여기는 항저우 〈유도/스케이트보드/태권도〉		
2			20 MBC 뉴스 3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유도/체조/태권도/탁구〉	
3			55 기분 좋은 날(재)	0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유도/태권도/남자배구〉
4	00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30 여기는 항저우 〈태권/유도/체조/펜싱〉	55 5 MBC 뉴스	
5	0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계체조/사이클/테니스/농구〉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6			3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농구 남D조, 대한민국:인도네시아/펜싱/수영/탁구〉	
7	40 생방송 토론740			0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수영/탁구〉
8	30 일일연속극 우당탕탕 패밀리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30 순정복서	30 MBC 뉴스데스크	30 SBS 8 뉴스 50 KBC 8 뉴스
11	3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4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재)	10 놀면 뭐하니? 스페셜	10 손대면 핫플 - 동네멋집
12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KBS 월드라디오 70주년 특별기획 콘서트	45 함께 항저우	5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뽕뽕빵빵 부부맨
07:15 빅 블루
07:30 출동! 슈퍼윙스
07: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최강우주소방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뽀롱뽀롱 뽀로로
08:50 로보카 폴리
09:20 인간과 바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17:20 애코의 요수리동요
17:25 뽕뽕빵빵 부부맨(재)
17:40 그린조끼 구조대
17:55 한글용사 아이야(재)
18:1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고사유랑1-영원불멸의 노래〉
21:30 한국기행 〈우리 지금 '맛'나 2부 적금도의 여름잔치〉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음 8월 12일 丁亥)

☎ 010-9790-8237

子 36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옹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48년생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거늘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60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72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84년생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봐라. 96년생 결실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32, 58

丑 37년생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49년생 단번에 큰 것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점진적으로 행하라. 61년생 파격적인 양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73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85년생 성벽같이 굳어지는 양태이다. 97년생 알고 있어야 피해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1, 93

寅 38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50년생 숨이 가쁜 하루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62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74년생 짐작치 못한 봉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86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98년생 총동원해야 성사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92

卯 39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51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63년생 평소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던 바가 흔들릴 수 있는 운세이다. 75년생 상세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87년생 대범하게 행동했을 때 수확도 클 것이다. 99년생 인간적인 관계 설정과 교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9, 62

辰 40년생 흉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는 없다. 52년생 가장자리가 매우 부실한 모습이니라. 64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76년생 현혹된다면 순간적으로 오판할 소지가 있다. 88년생 참된 뜻을 알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조성된다. 00년생 배경까지 살펴보고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45, 62

巳 41년생 제사 덕분에 이밥을 먹는 격이로다. 53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65년생 뜻밖의 환심을 보이는 이를 경계하라. 77년생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89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기필코 이루고야 말리라. 01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13, 71

午 42년생 앞서서 걱정해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54년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만 만사가 형통하리라. 66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켜갈 수 있다. 78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90년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다. 02년생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23, 98

未 43년생 제대로만 한다면 대박 나겠다. 55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 67년생 첫머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79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유용하다. 91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03년생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40, 82

申 44년생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56년생 일반적이지 못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68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80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92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격이다. 04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27, 99

酉 45년생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기겠다. 57년생 높은 산에 올라간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69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81년생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괜찮은 편이다. 93년생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05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51

戌 34년생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한다. 46년생 내일을 위해서 아껴 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58년생 요인은 따로 있으니 허방 짚지 말아야 하느니라. 70년생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82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94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9, 70

亥 35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4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펴 가자. 59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71년생 상향 조정되거나 훨씬 늘어나는 판시세로다. 83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95년생 무난하게 추진되는 운로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5